비공식 번역문

FACT SHEET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미국’

2020.11.14.

공유된 가치에 관계를 기반하고 있는 동맹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에 대한 존중,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원칙에 따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한미간 협력은 포괄적이며 성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경제, 스마트 시티 및 천연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있다(“번영”). 또한, 양국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반부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good governance)을 구축**하고, 여성 역량 강화 및 태평양 도서국내 보건 및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인적 자원에 투자**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사람”). 아울러, 양국은 초국가 범죄 및 마약 밀수매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 및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해양 환경 보호 및 재난 대응·대비 증진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있다(“평화”).

2020년 8월 20일(미국시간 8월 19일) 한미 양국은 한미 신남방정책-인태 전략 실무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화상으로 진행된 동 실무협의체에서 양측은 법집행, 사이버 안보 및 태평양 도서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세안 및 메콩 지역 관련 협의가 2020년 말에 열릴 예정이다.

경제적 번영 촉진

한미 양국은 시장 기반 경제 체제, 민간 금융, 법의 지배 고수, 개방된 투자 환경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한국은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신남방정책 플러스 아래 한-아세안 협력에 있어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력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한편, 역내 팬데믹 대비 및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건의료, 교육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우선시 할 것이다.

○ **양자 파트너십 강화**: 2020년 10월 한미 양국은 제5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개발,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관련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개발 협력**: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2019년 9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 미국 국제개발처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은 코로나19 대응, 성평등, 정보통신기술(ICT), 청소년, 보건, 교육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가기 시작하였다.

○ **인프라**: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2019년 10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시장 중심의 민간 투자를 통한 역내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2020년 2월 서울에서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회의 및 인프라 협력 관련 민간 분야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메콩 지역내 인프라 관련 투자 촉진을 목표로, 인도-태평양 지역내 협조융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양질의 인프라를 위한 블루닷 네트워크 관련 의견 교환을 지속하고 있다.

○ **에너지**: 2020년 8월 한미 양국은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양측은 물리적・사이버 영역에서의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포함, 에너지 안보 관련 협력을 보다 심화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 **디지털 경제**: 한미 양국은 2020년 9월 개최된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 계기를 포함,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역량 평가, 공동 연수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관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또한 5G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프라하 5G 안보 회의에 참여하였다. 한미 양국은 일본과 함께 여성역량강화 3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역량 강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공계(STEM: Science(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공학), Math(수학)) 분야내 여성의 참여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스마트 시티**: 미국은 미-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USASCP)을 통해 물 관리 및 재활용, 도시 보건 및 교통계획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 국제협력단은 USASCP 및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와의 공조 하에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밸리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USASCP 주도 아세안 국가 공무원 대상 스마트 시티 분야 제3국 연수 프로그램에 한국 공중보건 전문가가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 **천연자원 관리**: 한미 양국은 동티모르에서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플라스틱 문재 해결 연맹(Plastics Solution Alliance)을 결성하고 딜리 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감소를 위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신사업 및 '그린 칼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 하 동티모르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손 세정대 건축을 지원하였다.

인적 자원 투자 및 선정(good governance) 구축

한미 양국은 사람의 안위, 생계 및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 원조와 민간 투자를 통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민들에 상당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 **인적 자원 개발**: 한국은 '한-아세안 협력 기금' 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과 학술·문화 교류에 매년 1,400만 불을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개발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혁신・무역・이-커머스를 통한 아세안 포용 성장 사업, 정치안보 관련 지역 최적화를 위한 파트너십 사업 및 아세안 정책 이행 사업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지역을 위한 법 기반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 **반부패**: 한국 국제협력단과 미국 국제개발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통합민원관리체계(LAPOR-SP4N!)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동 체계는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민원 접수를 가능케 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공 서비스 예산이 목표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반부패 사업과 상호 보완하여, 한국 국제협력단은 2019-22년간 동 사업에 500만 불을 기여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지방정부의 부패 방지 및 투명한 민원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 **여성 역량 강화**: 한미 양국은 한국과 지역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향후 협력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동 계획에 근거하여 양국은 2019년 12월과 2020년 9월(화상)에 각각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지역 가치사슬에 여성 소유・주도 중소기업을 포함하기 위한 '여성 기업가 기금(We-Fi)'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한 '여성의 글로벌 개발 및 번영 이니셔티브(W-GDP)'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POWER)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간-공공 분야간 협의 조율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2020년 10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진전을 위한 행동 촉구'를 출범한 유엔 회원국 핵심그룹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한미 양국은 여러 다른 나라와 함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여성・평화・안보 성명의 공동제안국으로서, 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역내 고위급 행동을 촉진하고 있다.

○ **태평양 도서국내 기후 변화**: 한국 국제협력단은 피지, 솔로몬 제도, 투발루 및 키리바시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기후 복원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지역의 지역공동체, 정부 및 지역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태평양 도서국 기관 강화 사업(ISACC)'은

기후 관련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정부 역량을 제고한다. 이에 더하여, 미국 국제개발처 '기후 대비(Climate Ready)' 사업은 다양한 국제 기금들로부터 5,400만 불을 확보하였다.

○ **보건**: 2020년 9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되어 기관명이 변경된 한국 질병관리청(KDCA)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9년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감염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개선해왔다. 양 기관은 또한 2020년 6월 전문가간 기술전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재양성화 사례와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 질병관리청, 미국 국제개발처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캄보디아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캄보디아 보건부와 함께 공중 보건 감시, 진단·검사 체계 및 긴급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한국은 12개 아세안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2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1,000만 불 규모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으며, 동 사업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및 베트남에서 이행되었다. 한국은 코로나19 아세안대응기금에 100만 불을 기여하였으며, 한-아세안 협력 기금을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들에게 PCR 장비, 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불 이상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다. 동 수치는 취약·소외계층의 권리 보호, 허위정보 및 혐오발언 대응, 공동체 식별 개발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코로나19의 중대한 非보건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가 12개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기여한 500만 불을 포함한다.

평화와 안보 보장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비전통 안보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역내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초국가 범죄 대응**: 한미 양국은 아세안 국가의 법집행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한국 경찰청은 '치안한류 프로그램(K-Cop Wave Program)'을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법집행기관에 훈련, 장비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초국가 범죄 대응 관련 역내 법집행 및 사법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메콩 지역에 5,500만 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치안한류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미 양국은 방콕 국제법집행아카데미(ILEA)와 한국 경찰대학을 통해 역내 법집행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마약 대응**: 한국은 동남아시아 마약단속기관을 대상으로 수사관 상호파견, 마약퇴치 캠페인 공동 개최, 초청연수, 장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법집행기관간 실무협의를 지속 확대하고,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개최된 한미 신남방정책-인태 전략 실무협의체에서 한미 양국은 불법 마약류 밀수매 예방, 모범사례 및 전문지식 공유, 마약류 수요 감축 조치를 통한 약물 사용 감축 등에 있어 공조하기로 하였다.

○ **해양 안보**: 한미 양국은 시설 건설 지원 자재의 보다 효과적 제공 및 보완적 노력·체제·장비를 통한 장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파트너 해양 법집행기관들과 함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양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이버 안보**: 2020년 8월 개최된 한미 신남방정책-인태 전략 실무협의체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법집행국 주도 글로벌 법집행 역량강화 네트워크(GLEN)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참여 모색,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움 개최를 위한 공조 지속 및 한국 대검찰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사이버 범죄 역량강화 허브(APC-HUB) 설립 지원을 위한 최적관행 공유 등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였다.

○ **해양 환경 보호**: 한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및 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 수질분석,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대응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해왔다. 한국은 역내 심화되고 있는 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 하에 2022년에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물 안보** : 한국 외교부와 한국 수자원공사는 물 관련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조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 항공우주국(NASA) 및 육군 공병단과 위성 기반 수자원 데이터 및 메콩 지역 국가 대상 연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는 미국과 여타 파트너 기관과 함께 메콩 지역내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2020년 10월 개최된 초국경 하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관련 분석 결과와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다.

○ **재난 대응 및 대비**: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의 자연재해 복원력 강화를 위해 한-태평양 도서국 기후예측서비스 사업에 2021년까지 180만 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과의 공조 하에 미국 국제개발처는 일차 대응역량 강화, 조기경고 시스템 확대, 재난인식 제고, 취약한 공동체의 대비태세 제고 등 태평양 도서국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 구축에 2020년에 약 830만불을 공약하였다. 끝.